

특허청, 블랙핑크 전세계 순회 공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예정

-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 통해 블랙핑크 위조상품 다수 확인해 차단 조치 -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9.16.(토)~17(일) 케이-문화(K-컬처) 선도그룹인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연*이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 FINALE IN SEOUL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홍보·계도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은 공연 당일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스카이돔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친다.

또한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정보 수집(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온라인 거래터 기업(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 또는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정보 수집(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케이-문화(K-컬처)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문화(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케이-문화(K-컬처) 관련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 존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케이-문화(K-컬처) 관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블랙핑크 정품 굿즈 사진 예시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담당자	서기관	신훈식 (042-481-8315)
			사무관	고호승 (02-568-9036)



응원봉



클리어백



리유저블백



후드티